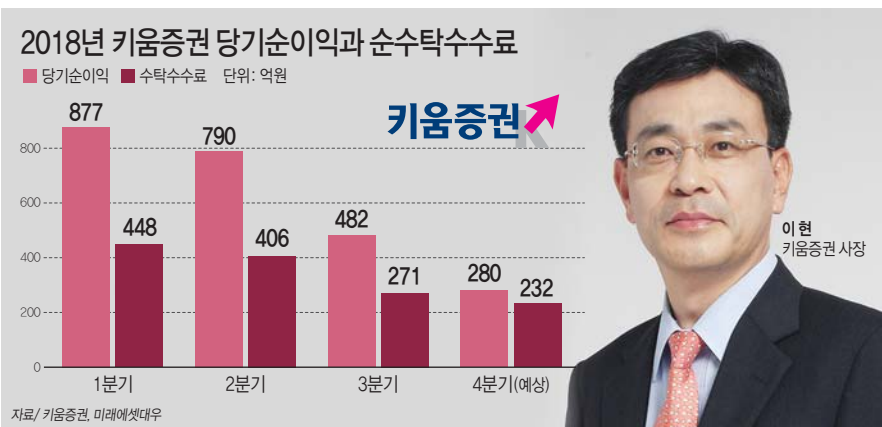


키움, 다 컸나 더 크나... '브로커리지 극복'에 달려있다

(주식 위탁매매)

‘수탁수수료 수익’ 상반기 호황
지난해 ‘순이익 역대최대’ 기록
증시 하락에 하반기 수익 반토막



키움증권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순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으로 수탁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덕분이다. 하지만 하반기 증시 상승 분위기가 꺾이자 키움증권의 이자 수익도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수탁수수료 수익에 의존한 수익 구조는 키움증권의 여전한 한계로 꼽힌다. 다만 올 하반기 거래세 폐지, 인터넷은행 진출 등으로 인한 키움증권의 성장에 두드러질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 수탁수수료 수익 864억원→503억원
10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지난해 순이익은 2554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기록이지만 전년보다 20% 이상 실적이 상승한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브로커리지(brokerage·주식 위탁매매) 수익 증가 덕을 톡톡히 본 상황에서 ‘뒷심’이 아쉽다는 평가다.
키움증권의 문제는 수익구조가 여전히

브로커리지 위주라는 점이다. 13년 연속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15%) 1위 증권사라는 점에서 증시 흐름에 따른 부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실제 미래에셋대우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854억원에 달했던 수탁수수료 순수익이 하반기에는 50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41.7%) 떨어졌다. 하지만 수탁수수료 수익의 변동성을 상쇄시켜줄 다른 성장동력이 마땅찮다. 그간 키움증권은 투자은행(IB) 등 자기자본투자(PI) 부문을 키우려 했지만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IB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지난해 3분기 기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부문 수익이 안정적이지만 PI 본부 수익은 유일하게 변동성이 큰 영역”이라며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PI 운용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키움 히어로즈’ 창단으로 관련 마케팅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키움 히어로즈 관련 비용은 향후 5년간 연간 100억원 규모다. 그동안 야구 관련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도 약 6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구단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 인터넷은행 등 시너지 사업 박차

오는 3월이면 이현 키움증권 사장의 취임 1주년이다. 때문에 올해에는 키움증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터넷 은행 진출’을 통한 종합금융사로의 도약이다. 현재 키움증권은 인터넷은행 사업을 함께 추진할 컨소시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증권사이자 모기업인 다우기술이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하고 있어 라이선스 취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미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필요자금의 조달 역시 부담이 크지 않다.
인터넷은행에 진입한다면 온라인 금융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다. 대상 고객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브로커리지 또는 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시너지 창출도 기대된다.
실제 일본의 SBI스미닛뱅크는 SBI증권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업계 1위로 성장했다. 특히 대표 상품인 하이브리드 예금은 은행과 증권사의 계좌를 통합해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SBI증권의 현물 거래 매수대금이나 신용거래 필요 보증

금 등에 사용이 가능케 했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브로커리지 사업 부문의 경쟁 심화와 높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최근 진행 중인 야구단 지원 등 브랜드 파워 제고 노력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인 가를 거쳐 2020년 중 1~2개의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래세 폐지는 키움증권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길원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헤비 트레이더(Heavy trader)의 거래 증가가 뚜렷할 것”이라면서 “고객의 저변이 넓은 키움증권의 상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간 6조~7조원에 이르는 거래세가 새로운 유동성으로 시장에 투입될 수 있어 전반적인 펀드멘털에도 긍정적인데”고 덧붙였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2월 11~17일))

구분	시기	시/도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m²)
오픈	15일	경기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1,050	1,050	19~84
			부평구 갈산동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	151	151	59~74
			서구 원당동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1,540	1,540	75~105

* 위 내용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아파트 분양 기지개... 견본주택 3곳 개관

분양캘린더

길었던 설 연휴의 영향으로 2월 둘째 주에는 청약 접수를 하는 단지가 한 곳도 없다. 다만 수도권에서 견본주택 3곳이 문을 여는 등 분양시장이 차츰 기지개를 켜 전망이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3곳(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에서 견본주택 개관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9곳, 계약은 13곳에서 진행된다. 1순위 청약접수 예정 단지는 없다.
견본주택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문을 연다.

대우건설은 오는 15일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 일대에 들어선다.
한국자산신용이 시행하고 신영건설이 시공하는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도 같은 날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단지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74㎡, 1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AB16블록 일대에 들어서는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75~105㎡, 1540가구로 지어진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은 “통화정책, 신용의 양·질에 영향”

BOK 경제연구소 보고서

단기금리, 은행위험준수에 영향
통화정책이 신용의 양(quantity)뿐만 아니라 질(quality)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은행의 수익 및 자산구조를 반영한 통화정책 위험선호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수준, 은행의 수익성·자산구조(내부등급별 채택 시) 등이 은행의 위험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2000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의 은행별 자

료를 이용해 단기금리, 은행의 수익·자산구조 등이 은행의 위험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금리가 은행의 위험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금리가 1.6%포인트(표준편차 1단위) 하락할 경우 은행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2.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위험가중치 변화(표준편차 기준)의 상당 부분(약 15%)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중 이어 할리우드 노리는 ‘시각 특수효과 업체’

株라쿨라의 종목

텍스터
韓시장 24% 점유... 韓·中 영화 참여
위지웍스튜디오
국내 첫 월트디즈니 공정심사 통과
대원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완구 유통
“유튜브,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시각적 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영화 예고편뿐 아니라 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VFX(Visual Effect·시각 특수효과) 사용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0일 “그동안 영화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VFX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VFX 업체들은 지난 2012년 이후 중국시장에 진출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최 연구원은 “중국 영화시장은 장르별 흥행수입의 50%가 VFX 기술이 필요한 SF, 액션, 판타지·무협 장르물일 정도로

VFX 기술의 활용도가 높다”면서 “중국 시장은 국내 VFX 업체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이 국내 VFX 업체를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먼저,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중국항 주수가 다시 분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둘째, 넷플릭스·아마존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한국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면서 사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내 관련 업체들이 할리우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3D 입체 상영관인 스크린X용 특수영상과 테마파크 놀이 기구에 활용되는 가상현실(VR) 영상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뉴미디어 분야에서의 수혜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텍스터, 위지웍스튜디오, 대원미디어를 추천했다.
텍스터는 시각특수효과 및 영화제작 전문업체다. 지난해 천만관객을 동원한 ‘신과함께’를 비롯해 중국 시장 흥행작인 ‘몽키킹3’, ‘귀취둥 2’ 등의 VFX 제작에 참여했다.
/손영지 기자

2017년 기준 국내 VFX 시장 점유율 2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를 넘어 드라마, VR미디어, 웹툰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성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제작에 참여한 재난영화 ‘백두산’ 개봉이 올 연말로 예정돼 있어 흥행시 큰 폭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콘텐츠 전문업체 ‘위지웍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월트디즈니의 공정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모든 할리우드 영화의 ‘스크린X’용 VFX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엔트맨과 스와프’, ‘아쿠아맨’ 등 5편의 스크린X 제작에 참여했으며, CJ CGV와 12편에 대한 본격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업체는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및 완구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원미디어’다.
현재 VFX 기술을 활용해 3D SF 드라마 ‘프로젝트 AS’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 제작과 함께 관련 완구와 모바일 게임, 캐릭터 상품 등에 대한 론칭까지 준비하고 있어 자체 콘텐츠 활용을 통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손영지 기자

주식형펀드 0.27% ↑ ... 순자산 750억 ↓

주간펀드동향

한 주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을 플러스를 실현했지만 순자산은 줄었다.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지수종중 자금인 인덱스 펀드 유형에서 순자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1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2월 1일~7일)간 전주 대비 0.06% 하락한 2203.42포인트를 기록했다. 연휴 이후 증시에서 기관의

매도가 이어진 탓이다. 해당기간 외국인이 4274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4655억원 순매도세를 보였다.
선진국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0.08% 하락한 2026.94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 역시 전주 대비 0.76% 하락한 1041.97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0.27% 올랐다. 다만 인덱스주식기타 유형에서 자

금이 유출되면서 전체 순자산은 750억원 감소세를 보였다.
해외주식형펀드는 1.67%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인도(2.55%), 친디아(2.33%), 글로벌(2.29%)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브라질(-1.76%), 베트남(-0.12%), 중동아프리카(0.33%) 펀드가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전체 순자산은 200억원 줄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주식형펀드는 인덱스주식기타유형인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4.26%)로 나타났다.
/손영지 기자